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渡日)한 승려 뇌헌

Monk Noiheon Accompanied by Ahn Yong-bok Who Went to Japan in 1696

유미림*
Yoo, Mi rim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III. 문헌에 기술된 뇌헌의 신분
- IV. '의승수군'설과 '승장'설
- V. 결 론

Abstract: Noiheon is a monk who was accompanied by Ahn Yong-bok when he went to Japan for the second time in 1696. Recently, a new hypothesis has emerged in academia that Noiheon went to Japan to carry out a national mission as the head of Euseung Sugun(monk civilian navy) belonging to Jeolla Jwasuyeong(West Naval Camp of Jeolla Province), not just a companion. This hypothesis is based on the fact that Noiheon declared himself as the head monk of Heungguksa Temple when he was interrogated in Japan in 1696, and was recorded as the 'head Buddhist monk' in Takeshima-ko(A Study of Takeshima).

Accordingly, Korean researchers insisted that Noiheon was the head of the righteous army of Heungguksa Temple belonging to the West Naval Camp of Jeolla Province. Thus, Korean researchers assert that the reason that Noiheon was not punished after returning from Japan was because he carried out the mission given by the state as the Buddhist monk admirals.

However, Seungeongwon ilgi(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records in detail the process of King Sukjong discussing forms of punishment to be administered to Ahn

* 한아문화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mirim-u@hanmail.net

Yong-bok with the prime minister, the first vice-premier, ministers of the Six Ministries, and senior ministers.

King Sukjong and his ministers judged that An Yong-bok was the most guilty, followed by Yi In-seong, who wrote an appeal. Rather, Noiheon wa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people accompanying Ahn Yong-bok's intimidation. As a result of this, the court rarely mentions him. Considering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if Noiheon was linked to the West Naval Camp of Jeolla Province, it is natural for the court to inquire of the West Naval Camp Admiral to find out the identity of Noiheon.

If Noiheon was the head of the temple, then the Ministry of Interior should have been aware of this as well. However, there is no record related to this at all in Joseon's documents. This means that Noiheon did not come to Japan as the commander of the righteous monk naval forces. In order to propose a new hypothesis surrounding Noiheon, researchers will have to examine historical sources from the Joseon Dynasty and then closely cross-examine various documents, including Japanese ones, to verify the facts.

Key words: Noiheon, Euiseung Sugun(monk civilian navy), head of monk soldier, Heungguksa Temple, Jeolla Jwasuyeong(West Naval Camp of Jeolla Province)

I. 서 론

한국에서 독도 연구는 일종의 회수분이다. ‘독도’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떤 시각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주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사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가 과연 얼마나 적실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 새로운 시각의 연구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일설은 점차 정설이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학계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검증을 활발히 하지 않아, 문제 있는 연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역사학적으로 접근한 독도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는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것이다.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독도 영유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용복을 조명 한 연구들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안용복을 새로이 조명한, 이른바 ‘안용복 밀사’설이 있었다.¹⁾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 설은 다른 연구에 적용되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안용복 연구가 거의 포화상태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확대되어서인지 몰라도, 주제가 안용복 관련 인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박어둔과 뇌헌이라는 인물이 이에 속한다.

박어둔은 1693년에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잡혀 들어갈 때 배멀미로 누워 있어서 독도를 보지 못했고, 일본어도 할 줄 몰랐다. 그는 1696년에도 안용복과 함께 울릉도에 갔지만 일본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박어둔이 울산 출신인 점에 착안, 그를 현창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²⁾ 그 결과 박어둔의 신분이 자세히 밝혀지고, 울산지역이 울릉도로 가기 전 거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박어둔이 안용복에 앞서 조사받은 사실을 가지고 양민 신분인 그의 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거나, 그가 배멀미로 독도를 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등³⁾ 객관성을 잃은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편향성은 박어둔이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울릉도·독도를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⁴⁾는 평가로 이어졌다. 박어둔이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의 해결에 안용복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위해 무리한 논지를 편 것이다.

뇌헌(雷憲)은 1696년에 안용복과 동행했던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박어둔과 마찬가지로 안용복에 부수되는 인물일 뿐 독도 영유권 확립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두 사람의 행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급기야 뇌헌 연구는 그를 승군으로 보는 이른바 ‘의승수군’설을 낳았고, 그의 선박을 군선

1) 유미림(2019)

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2010)

3) 위 보고서, p.26.

4) 위 보고서, p.60.

(軍船)으로 보는 설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이 글은 ‘의승수군’설을 포함한 최근 학계의 뇌헌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거론한 연구자들은 처음에 나올 때만 기명(記名)하고, 이후에는 주로 논자로 칭했음을 밝힌다.

II.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들이 승려 뇌헌의 행적을 수군과 연결짓게 된 배경에는 일차적으로는 안용복의 도일이 단순히 일개 어민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1696년에 도일한 뇌헌이 안용복 동행자로서가 아니라 공동기획자로서 도일한 것이고 이들 행적의 근저에는 공권력이 개재되어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었다. 이런 시각은 뇌헌을 의승수군으로 보는 일설을 점차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이런 인식이 연구자마다 같은 논리로 단일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진행 과정을 알려면 선행연구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권정(2011)⁵⁾은 1693년 안용복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삼계의 사쿠완(국주)’의 명령으로 전복을 따러 왔다고 했으므로 그의 도해와 어로허가증 획득에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와 같은 공직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논자는 사쿠완을 상관 또는 장관으로 해석한 오카지마 마사요시의 설, 그리고 이를 부산첨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오니시 도시테루⁶⁾의 해석을 받아들여 상관을 부산첨사로 보았다.⁷⁾ 부산첨사가 주모자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한국 측 사료에 주모자에 관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어획을 감행한 세력이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논자의 전체적인 요지는 안용복의 도해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5) 권정(2011)

6) 인명과 지명, 문헌명, 관명 등은 인용자에 따라 표기가 다르나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 통칭으로 표기했다.

예: 오오니시 토시테루->오니시 도시테루, 원록->겐로쿠, 장군->쇼군

7) 위의 글, pp.516-519.

아니라 배후에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와 같은 공권력이 있었고 이는 1696년의 2차 도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것이다.⁸⁾ 다만 논지를 펴는 과정에서 안용복의 상관으로 부산첨사를 거론했다가 동래부사를 함께 언급하고, 배후세력과 주모자로도 언급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⁹⁾

1696년 안용복의 도해에 동행한 뇌헌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가 “승병 승군을 이끄는 지휘관을 겸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자는 권혁성(2012)¹⁰⁾이다. 논자는 조선 측 기록에는 뇌헌이 안용복을 울산에서 만나 울릉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용복의 배에 동승하여 울릉도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¹¹⁾ 논자는 조선 측 기록에서 뇌헌을 승(僧), 순천승, 판승(販僧), 유판승(流販僧), 상승(商僧)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용복이 울산에 갔을 때 뇌헌이 출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안용복이 뇌헌의 배에 동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¹²⁾ 11명¹³⁾의 일행 중 뇌헌의 지인이 8명이 된다는 사실도 안용복이 뇌헌의 배에 편승한 것의 근거로 제시했다.¹⁴⁾

논자는 뇌헌에 대한 일본 기록 이른바 『겐로쿠 구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겐로쿠 각서로 약칭)에 기술된 내용, 즉 뇌헌이 흥왕사¹⁵⁾ 주지로서 55세이며, 1689년 윤3월 18일자 금조산¹⁶⁾의 주인장과 1689년 윤3월 20일자 금조산 주인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산목(주판)과 벼루, 붓과 먹 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¹⁷⁾ 이에 논자는 주판이 상승의 필수품으로 보았고, 뇌헌 제자 가운데 연습의 이름만 기술되어 있음은 나머지 사람들은 복장만 승려일 뿐 고용한 선원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 문헌 『다케시마고(竹島考)』는 ‘금오승장 석씨판사(金烏僧將釋氏憲判事)’로 기록하되 ‘금조산 주인장’의 연호가 중국

8) 위의 글, p.523.

9) 위의 글, pp.520-521.

10) 권혁성(2012). 뇌헌은 뇌헌을 오기한 듯하다.

11) 위의 글, p.377.

12) 위의 글, p.378.

13) 『속중실록』에 따르면, 11명의 명단은 안용복, 유일부, 유봉석, 이인성, 김성길, 김순립, 뇌헌, 승당, 연습, 영률, 단책이다.

14) 권혁성(2012), p.379.

15) 권혁성은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흥왕사로 읽다가 후반부에서는 흥국사로 읽었다. 흥국사가 맞다.

16) 권혁성은 전반부에서는 금조산으로 오독했다가 후반부에서는 금오산으로 읽었다. 본래는 金烏山이 아니라 金鰲山이다.

17) 권혁성(2012), pp.381-382.

연호로 표기한 사실을 들어 중국과 일본 양국을 도해하는 스님으로 볼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 한편 안용복이 울릉도에 온 선박 13척을 운운한 사실을 들어 조선 어민의 동해에서의 어렵 활동이 자유로웠다고 보았다.¹⁸⁾

논자는 뇌헌이 주판을 소지한 것은 수지를 감사하기 위해서이며, 금오산의 주인장을 소지한 것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항을 허가하는 면허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뇌헌이 홍국사 주지라는 사실에 주목, 홍국사는 임란 당시 의승수군의 훈련소가 있었고 가까운 곳에 전라좌수영이 있었는데 뇌헌이 ‘금오승장’을 칭한 것은 승병 승군을 이끄는 지휘관을 겸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논자는 홍국사가 운수유통업과 금융거래에도 깊이 관계하고 있었으므로 뇌헌은 사무의 원활한 전개와 자금회수를 위해 각지에 파견된 책임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았다.¹⁹⁾

논자의 논지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뇌헌이 어렵을 위해 선단을 구성하고 있다가 안용복을 편승시킨, 상당한 재력의 승려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울릉도로 간 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홍국사가 임란 당시 의승수군 훈련소였으므로 홍국사 주지인 뇌헌은 승군 지휘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뇌헌이 의승수군 주둔사찰의 주지였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부터 ‘의승수군’설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논자는 중국 연호를 뇌헌의 중국 도해와 연관지었지만 조선시대는 모든 문서에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도해와는 상관이 없다.

이들 주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용복 밀사’설이 제기되었다. 권오엽(2015)²⁰⁾은 안용복이 남구만의 밀사라는 논지를 폈는데, 부산첨사와 같은 공적 권력을 통해 안용복에게 밀명을 주어 실행시켰다는 것이다. 최영성(2019)²¹⁾은 권오엽의 ‘안용복 밀사’설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뇌헌을 의승수군으로 본 권혁성의 논지도 발전시켰다. 논자는 1696년에 안용복이 ‘의승수군’ 뇌헌과 제후했다고 보았고, 『겐로쿠 각서』에서 뇌헌이 자신을 “홍국사 주지, 55세”라고 한 사실과 『다케시마고』에 ‘금오승장’이라고 기술한 사실에 따라, 뇌헌이 “홍국사 주지로 의승장을 겸했을 가능성이 높다”²²⁾

18) 위의 글, p.382, p.386.

19) 위의 글, pp.387-388.

20) 권오엽(2015)

21) 최영성(2019)

는 논리로 진전시켰다.

논자는 『겐로쿠 각서』에 ‘금오산의 주인장’과 ‘금오산 朱印의 書’라고 기술한 사실이 ‘금오승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주인장은 에도시대 쇼군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말하는데 뇌헌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은 승장에 임명하거나 해상통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았다. 논자는 조선 측 문헌에 뇌헌을 ‘상승’ 혹은 ‘판승’으로 기록했으나 ‘장사하는 스님’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뇌헌이 소지한 산목도 셈을 위한 것이 아닌 점대라고 보았다. 뇌헌을 비롯한 이들 의승수군은 전라좌수영 소속의 군인인데 이들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은 전라좌수사의 비밀허가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논자는 뇌헌의 행적이 공적 기관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뇌헌이 귀국 후 문초 받은 뒤 얼마 안 돼 풀려났고, 1703년에 세워진 『흥국사 사적비』에 그를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²³⁾

이렇듯 최영성은 권혁성의 논지를 받아들여 뇌헌이 의승수군임을 기정사실로 하고 전라좌수영 소속의 군인으로 연결지었다. 또한 뇌헌의 처벌이 미약했다는 사실을 배후에 공적 세력이 있는 것으로 연결지었다. 논자는 일본에서 발행된 문서(주인장)를 흥국사 주지를 승장에 임명하는 문서, 나아가 조선인에게 준 해상통행권과도 연결시켰다. 이상균과 안동립(2019)²⁴⁾은 뇌헌이 전라좌수영에 소속된 의승수군이었다는 선행연구들을 답습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두 논자(이상균과 안동립)는 뇌헌이 순천에서 출발하고 안용복은 울산에서 합류한 것으로 1696년의 도일 행적도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안용복이 뇌헌의 배에 편승한 것으로 본 것이다. 두 논자는 안용복이 1696년 오키에서 13척의 배가 울릉도에 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개인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숫자라고 보았다. 이를 언급한 것은 “1693년 도해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부산 첨사와 같은 지방 권력자의 승인 또는 묵인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²⁵⁾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 역시 선행연구를 답습한 것이다.

이렇듯 두 논자는 조선 측 문헌에 기술된, 안용복이 상승(商僧) 뇌헌을 꺾어 울릉도로 데려갔다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승군 혹은 수군과 연결지었다. 그런데 뇌헌을

22) 위의 글, p.112.

23) 위의 글, pp.113-115.

24) 이상균·안동립(2019)

25) 위의 글, p.105.

상승이라고 한 사실은 『숙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보이지 않고 『춘관지』와 『만기요람』에 보인다. 『춘관지』는 예조의 등록을 따른 것이고 『만기요람』은 『동국문헌비고』를 따른 것으로, 둘 다 관찬문헌이다. 뇌헌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두 논자는 『다케시마고』에서 안용복이 누구나 은 40목씩을 관에 바치고 이 찰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안용복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납속제도를 이용하여 통정대부라는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비장 혹은 동지 등을 칭한 것이므로 그가 신분을 속이거나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²⁶⁾ 그러나 이는 사료의 오독이다. 『다케시마고』를 보면, 안용복이 은 40목(目)을 내고 요패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 그리고 요패의 앞면에 “동래 사노 용복 년삼십삼 장사척일촌 면철자잡 생파무 주경거오충추(東萊私奴用卜年三十三 長四尺一寸 面鐵髭暫生疤無 主京居吳忠秋)”가, 뒷면에 “경오 부산 좌자천 일리 제십사통 삼호(庚午 釜山佐自川一里 第十四統三戶)”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안용복이 납속제를 이용하여 통정대부가 된 것이 아니라 노비 신분을 40목에 산 것이 된다. 돈을 주고 노비 신분을 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가?

정태상(2020)²⁷⁾은 1696년 도일 당시 뇌헌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적비에 ‘判事 雷軒’이 새겨져 있으므로 ‘판사’가 관명이라면 그의 행위를 사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적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일행 중 7인²⁸⁾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배도 그의 배로 추정되므로 흥국사의 승군이 운영하는 선박일 것으로 보았다. 일본에서 소장(訴狀)을 쓸 때도 그의 제자(연습)가 참여한 것을 두고 뇌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연결지었다. 오키에서 조사받을 때도 안용복은 통역자일 뿐 문답을 주도한 자는 뇌헌이라고 보았다.²⁹⁾ 또한 논자는 안용복이 관리나 장수로 추정되는 직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국가적인 일이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³⁰⁾ 했다. 한편 논자는 안용복과 뇌헌의 신분에 관해서는 조선 측 기록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용복은 ‘동래수군’, 뇌헌은 ‘상

26) 위의 글, p.107.

27) 정태상(2020)

28) 정태상은 4명의 승려 외에 이인성, 김성길을 언급했다. 권혁성은 4명의 승려 외에 이인성과 김성길, 유일부를 언급했다.

29) 정태상(2020), pp.37-43.

30) 위의 글, p.44.

승'으로 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³¹⁾

논자는 뇌헌의 신분을 공적 행위와 연결지으려 했지만 조선 기록과 일본 기록에서 보이는 신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상승 뇌헌과 승군 혹은 의승수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뇌헌이 판사³²⁾였다면 이는 사찰의 행정에 관여한 사판 승이었음을 의미할 뿐 국가에서 부여한 관명으로 보기 어렵다. 안용복이 관리나 장수로 추정되는 직명을 사용한 것은 그 자신이 가칭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실제 관명이 아님이 밝혀졌다. 뇌헌은 조선에서 승장을 가칭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승장 관련 내용은 일본의 2차 문헌에서만 보인다.

논자는 “소송 문서의 직접적인 작성은 이인성이 담당하였다. 이인성은 이로 인해 귀국 후 조선 조정에서 그 죄를 논할 때, 주범인 안용복 다음으로 죄가 큰 종범(從犯)으로 다루어졌다.”³³⁾고 했다. 그럼에도 소장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를 뇌헌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논자는 “뇌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제자까지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³⁴⁾고 하는데, 제자가 입회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뇌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가? 이 논리대로라면 뇌헌이 주범(主犯)이자 수범(首犯)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논자는 뇌헌이 승군이었음의 근거를 2020년에 검색한 흥국사 홍보자료에 “목수 수군스님”이라고 한 사실에 두고 있다.³⁵⁾ 승군과 수군을 동일시한 것도 문제지만, 현대 자료에 의거한 것도 올바른 고증방법은 아니다.

이태우(2020)³⁶⁾ 논문의 요지는 뇌헌 등 일행 5명이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으로서 안용복과 함께 공동목적을 위해 도일한 것이므로 요즘말로 하면 ‘울릉도 독도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그는 자신과 유사한 주장을 한 선행연구로서 최영성과 권정, 권혁성, 권오엽의 연구성과를 제시함으로써 그들과 연구시각을 공유함을 드러냈다. 그는 뇌헌 등의 승려가 ‘전라좌수영 소속

31) 위의 글, p.51.

32) 판사는 승려의 계위(階位)이다. 1644년 흥국사 승군조직 안의 계위에는 老德, 判事, 大禪師, 大德이 있었다(양은용, 1991, p.199)

33) 정태상(2020), p.43.

34) 위의 글

35) 위의 글, p.46.

36) 이태우(2020)

37) 위의 글, pp.141-142.

의승수군'임을 입증하기 위해 홍국사의 연혁과 연결지었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홍국사는 의승수군의 본영이고 임란 당시 자운과 옥형 등이 이끈 승병들은 의승수군으로 불리며 수군³⁸⁾에 참전했다. 그리고 홍국사는 다른 사찰에 없는 공북루가 있어 의승수군이 주둔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홍국사 승군의 규모와 지위는 타 지역에 비교될 정도였으므로 홍국사 의승수군의 수장은 팔도도총섭³⁹⁾의 직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승수군인 승려들은 임의로 주둔지인 홍국사를 벗어나는 것이 군령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안용복 일행을 싣고 도일했던 선박과 금오승장 뇌헌과 그의 제자인 의승수군들이 상부의 특별한 지시나 허락 없이 주둔지인 홍국사를 벗어났다가 귀국 후 큰 처벌 없이 복귀했음은 그들의 도일이 조선 조정의 고위급 관리와 비밀리에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⁴⁰⁾ 이는 최영성의 논지와 거의 같다. 논자는 뇌헌을 일러 직접적으로 팔도도총섭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승장이라고 했으므로 팔도도총섭과 동일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논자는 뇌헌 등의 승려를 승군으로 보고, 5명의 군인들을 정규군인 관군이나 좌수영 수군으로 구성하지 않고 의승수군을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는 ①정규군을 파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 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② 이들 의승수군이 좌수영 수군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란 당시 의승수군이 수행했던 특수임무를 뇌헌 등도 수행한 것으로 비정했다. 특수임무란 하나는 안용복과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뇌헌과 안용복 모두 수군 소속으로서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 외에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⁴¹⁾ 그리하여 그는 “전라좌수군 편성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좌수영지』에 기록된 의승군인데 전라좌수군으로서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논자는 의승수군이 군령의 적용을 받는 듯이 기술했다가, 5명의 승려를 정규군인 관군이나 좌수영 수군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가, 안용복과 승려를 수군에 소속시키기도 하는 등 일

38) 위의 글, p.146. “즉 의승수군은 승려로서 임진왜란 때 수군에 참전한 의병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수군에 참전했다는 것의 의미가 정규군 수군에 투입되었다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39) 위의 글, p.147.

40) 이태우(2020), pp.147-148.

41) 위의 글, pp.150-151.

관성이 없어 혼란을 일으킨다. 논자의 글에는 수군과 승군, 의승수군, 정규군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수군과 의승수군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들은 뇌헌의 도일을 개인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의승군(의승수군)의 공적 행위라는 시각에서 다루되 의승군과 정규군으로서의 수군을 혼용하고 있다. 같은 논자의 글 안에서도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뇌헌을 팔도도총섭이라는 최고의 승직과 동일시했지만 출전이나 고증은 없다. 한편 뇌헌을 의승수군으로 보는 시각은 그의 선박을 군선으로 보는 다른 시각을 창출했다.⁴²⁾

이상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696년 도일 당시 선박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안용복이 말한 13척의 배는 지방 권력자의 승인 아래 울릉도에서 어로를 했는가? 안용복과 뇌헌의 배후에는 고위급 관리가 있었는가? 뇌헌은 흥국사 주지였으며, 또한 주지라는 사실은 의승수군이자 승장임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가? 뇌헌은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지녔는가? 뇌헌은 군선을 동원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했는가? 1696년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뇌헌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 이들 의문점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III. 문헌에 기술된 뇌헌의 신분

1.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뇌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는 당대의 1차 사료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료부터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측에는 뇌헌의 행적을 보여주는 1차 사료가 있다.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이다. 뇌헌이 일본에서 돌아온 뒤 조정에서는 안용복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국왕과

42) 이상균·안동립(2022)

대신 간에 열띤 논전이 있었는데 『승정원일기』는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⁴³⁾ 의승수군 뇌헌이 안용복과 함께 국사를 도모한 자라면 이들 사료에는 당연히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한다.

『속종실록』은 뇌헌을 ‘순천 승려(順天僧)’로만 기록했다. 실록은 안용복이 뇌헌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에까지 갔다 온 사실을 기술하고 안용복을 소송 주체로 기술했다.⁴⁴⁾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강원도 관찰사에게 잡혀 감영에 갇혀 있다가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비변사에서 심문받았다. 김순립을 제외한 다른 일행도 마찬가지다. 이때 안용복은 울산에 갔다가 우연히 뇌헌을 만나 그를 유인하여 함께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이 배를 타고 영해⁴⁵⁾의 사공 유일부 등과 함께 떠났다”⁴⁶⁾고 진술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선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다. 유일부를 뇌헌의 지인으로 본 경우가 있는데, 안용복이 귀국 후에 유일부를 언급한 것이므로 울릉도로 가기 전부터 알던 지인인지 아니면 가던 도중에 알게 된 자인지 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흥해(혹은 영해)와 울산이라는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면 안용복의 지인으로 볼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⁴⁷⁾ 울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둔 안용복은 1693년에는 울산사람 박어둔과 함께 울산에서 울릉도로 떠날 정도로 울산과 연고가 있었다. 뇌헌은 순천승으로서 울산에서 배를 대고 있다가 안용복을 만났다. 이는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순천에서 울산으로 왔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두 사람은 울산을 매개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록은 안용복의 공술 내용을 쓴 뒤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도 대략 이와 같았다”⁴⁸⁾고 했다. 이는 안용복 다음으로 뇌헌을 심문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뇌헌의 공사는 안용복의 공술과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실록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때 뇌헌이 승려라는 신분 외에 흥국사 주지라거나 승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역시 기록되었을 것이다.

43) 『승정원일기』 1696년 9월 27일

44) 『속종실록』 1696년 8월 29일

45) 『속종실록』 1696년 8월 28일과 29일 기사에는 劉日夫가 興海人으로 되어 있고, 『속종실록』 1696년 9월 25일 기사에는 유일부가 ‘寧海篙工’으로 되어 있다.

46) 「遂同乘船 與寧海篙工劉日夫等 俱發到本島」(『속종실록』 1696년 9월 25일)

47) 『다케시마고』에는 ‘삼품당상 안 동지’로 안용복이, ‘帶率’한 사람 가운데 유일부(원문은 劉漢夫)가 보이지만, 이 역시 애매하게 되어 있다.

48) 『속종실록』 1696년 9월 25일

비변사의 심문내용은 곧바로 숙종에게 보고되었다. 변정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숙종은 보고를 받자마자 다음날인 9월 27일 대신들과 안용복 및 그 일행의 처리를 함께 의논했다.⁴⁹⁾ 어전회의에 참여한 대신은 영의정 유상운, 좌의정 윤치선, 이조판서 최석정, 형조판서 김진귀, 병조판서 민진장, 공조참판⁵⁰⁾ 오도일, 행 부사직 서종태이다. 우의정 서문중과 행 판중추부사 신익상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형조판서가 따로 방문하여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 불참한 대신을 따로 찾아가 의견을 들을 정도로 이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로 처리되고 있었다.

영의정은 안용복을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그의 진술만 믿을 수는 없으니 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좌의정도 이에 동조했다. 우의정은 안용복의 처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행 판중추부사는 대마도에 안용복 처리 관련 일을 통고하는 일과 안용복의 처단을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병조판서도 대마도와의 관계를 먼저 염려했다. 이조판서는 안용복이 우리 국경에서 죄를 저지른 경우와 외국에 가서 저지른 경우는 다르니 앞으로의 상황을 본 뒤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형조판서도 이에 동조했다. 공조참판은 안용복이 공을 세우기 위해 뒷사람을 속였다고 보고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되 이인성의 죄는 안용복과 같이 다룰 것이 아니라 차율(次律)로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형조판서는 김순립을 붙잡아온 뒤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행 부사직은 대마도의 상황을 본 뒤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의견을 들은 숙종은 “이 일을 전적으로 주도한 자는 안용복이다”고 하며, 소송 건이 대마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은 안용복의 처리방침을 결정하지 못해, 영부사 남구만과 영돈녕 윤지완에게 의견을 구한 뒤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이렇듯 9월 27일의 논의에서 대신 가운데 누구도 뇌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용복 다음으로 거론된 자는 이인성이다. 영의정은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일을 주도한) 안용복이 수범이고 소장을 써준 이인성은 종범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용복의 꾀에 넘어가 갔다 온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논죄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숙종도 이인성의 죄는 안용복의 죄에 견줄 바가 못 되며 다른 사람들은 안용복의 위협 때문에 따라간 것으로 인식했다. 좌의정은 안용복이 글을 몰라 문자를 아는 이인성을 유인해서 간 것이지만

49)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1696년 9월 27일

50) 6월 22일 임상원을 공조판서에 임명한 기사가 있고 10월 5일 기사에 이세호를 공조판서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조판서는 임상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있어 참판이 대신 참여한 듯하다.

소장을 써준 이인성의 죄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렇듯 대신들은 대체로 안용복이 사건을 주도한 수범이고, 이인성이 중범이며, 나머지는 안용복의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자들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인성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 도착한 뒤에 알았고 안용복이 권유하고 협박하여 소장을 썼다는 사실이 그가 일본에 있을 때 쓴 기록으로 밝혀졌다.

얼마 뒤(10월 13일) 좌의정은 숙종에게 안용복의 죄를 청했다. 좌의정은 이에 앞서 숙종의 명으로 영돈녕 윤지원과 영부사 남구만에게 의견을 구한 바 있다.⁵¹⁾ 윤지원과 남구만 모두 안용복의 사형에 반대했다. 이에 좌의정은 안용복과 이인성은 나중에 조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석방할 것을 숙종에게 제안했다. 윤지원과 남구만은 대마도의 흥계를 폭로하고 자복시킨 공이 안용복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안용복을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했지만 이때도 뇌헌은 언급되지 않았다.⁵²⁾ 뇌헌이 독일의 공동 기획자이고 승장이었다면 조정에서 이렇듯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696년 안용복의 독일은 계획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쓸 줄 아는 양반이 필요했다. 이인성을 동행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인성이 당숙인 뇌헌을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알 수 없다. 이인성이 안용복과 뇌헌의 권유 혹은 협박 때문에 소장을 쓴 것이라면 이는 안용복의 지인이 이인성이 아니라 뇌헌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안용복은 울산에 있었고, 뇌헌은 울산에 가 있다가 안용복을 만났다. 이 역시 뇌헌이 일찍이 울산에 왕래하던 자였음을 시사하고, 그렇다면 울산에 자주 드나들던 안용복과 뇌헌은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은 뇌헌이 상승이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9월 27일에 숙종은 이 사건을 일본 측에 전할 때 동래부사에게 전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서로 전할 것을 지시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인데, 숙종이 줄곧 처벌을 문제삼은 자는 안용복과 이인성이었다. 뇌헌에 대한 언급은 영의정이 “뇌헌이 소장을 권유하여 짓게 했다고 하지만, 그를 따로 나눠 정죄(定罪)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⁵³⁾라고 한 대목이 전부다. 조정에서의 논의는 안용복과 이인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뇌헌을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뇌헌을 전라

51) 『숙종실록』 1696년 10월 13일

52) 『숙종실록』 1697년 3월 27일

53) 『승정원일기』 1696년 9월 27일

좌수영이나 의승군과 연계시켜 볼 여지는 거의 없다. 뇌헌이 의승수군으로서 고위직 관리와 연계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처리 방식이 가능했겠는가? 논자들이 말하는 고위직 관리란 위에서 언급된 대신들을 제외하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남구만이 안용복의 사형을 반대한 이유가 그가 배후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필자가 논증한 바 있다. 남구만은 뇌헌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안용복과 뇌헌이 고위직 관리와 비밀리에 연계되어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남구만이 이를 함부로 발설하지 못했다는 가정은 위에서와 같은 논의과정을 볼 때 성립하기 어렵다. 만일 그런 배경이 있었다면 조정의 회의석상에서는 안용복도 언급되지 않았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기획자라면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국왕과 대신들의 안중에 없던 인물 뇌헌을 승장에 비견하거나 그의 배후세력으로서 공적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억단이다.

2. 뇌헌의 신분

실록은 뇌헌을 ‘순천 승려’로 기록했지만, 다른 관찬 문헌은 상승(商僧)으로 기록했다. 이들 문헌은 안용복이 울산에 갔을 때 배를 대고 있던 뇌헌 등을 유인한 것으로 기술했다. 이 기술로 본다면 안용복이 뇌헌의 배에 편승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일본 문헌『다케시마고(竹島考)』(1828)는 안용복을 선장으로 칭했다.

안용복이 일본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겐로쿠 각서』는 뇌헌을 ‘흥국사 주지’이며 55세라고 기록했다. 그가 금오산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서 오키 관리가 이를 옮겨 적었다. 『숙종실록』과 『겐로쿠 각서』에는 雷憲으로 적혀 있고, 흥국사 사찰의 사적비에는 ‘判事 雷軒’으로 적혀 있다. 논자들은 이를 숙종 대의 뇌헌과 동일시하지만, 일본의 2차 문헌도 ‘憲 判事’로 바르게 적고 있음을 감안하면, 흥국사 사적비에 雷軒으로 적은 것은 의아하다. 2차 문헌인 『이나바지(因幡志)』(1795)와 『다케시마고』, 『인푸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19세기 중반 추정) 등도 ‘金烏僧將 釋氏’와 ‘憲 判事’로 기록했다. 대부분 ‘雷憲’으로 바르게 기록하고 있다. 『겐로쿠 각서』는 ‘흥국사 주지’라고 했는데 『이나바지』는 ‘금오승장 석씨’로 바꾸어 적었고 『다케시마고』도 이를 답습하여 ‘금오승장’으로 칭했다. 『이나바지』는 아오야의 선박업자 차야 헤이스케(茶屋兵助)가 보관하고 있던 기록

과 배 표식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케시마고』의 저자조차 『이나바지』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고 비판할 정도였으므로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뇌헌이 ‘금오승장’을 칭한 사실이 승병과 승군을 이끄는 지휘관을 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고 해석했지만, ‘금오승장’은 뇌헌이 직접 진술한 바가 아니다. 뇌헌이 금오산의 주인(朱印)이 찍힌 문서를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했는데 금오산(金鰲山)은 여수의 향일암⁵⁵⁾과 관련된 지명이고, 흥국사는 여수의 영취산과 관계된다. 향일암의 뇌헌 당시의 명칭은 금오암이었다.

사적비에 적힌 ‘판사’를 관명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 논자가 있지만, 판사는 사찰에서 승려의 계위(階位)를 가리킨다. 일례로 1729년 흥국사 승려의 계위를 보면, 시주질(施主秩)이라는 편대에 도총섭 1인, 등계대사(登階大師) 1인, 대선사 1인, 대사 1인, 판사 2인이 있고,⁵⁶⁾ 연화질(緣化秩)이라는 편대에 도총섭 1인이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승군이 편대에 속하여 모두 391명(속인 79명)이 있었다.⁵⁷⁾ 이를 적용한다면, 뇌헌은 사찰의 판사였음이 성립한다.

뇌헌을 사찰의 주지로 단정하고 이를 승군 지휘관과 연계시킨 논자가 있지만, 주지는 두 종단에서 추천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는 이조에 공문을 보내 이조에서 차출하여 보내도록 했다.⁵⁸⁾ 이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뇌헌이 주지였다면 당연히 조정에서 이조판서가 이 사실을 언급했을 것이다. 한편 뇌헌을 일러 “배를 운영하는 판승”⁵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선박의 소유주는 사찰이고 운영자는 뇌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이는 사찰이 좌수영과 무관하게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

54) 권혁성(2012), p.388.

55) 원통암에서 금오암을 거쳐 향일암으로 바뀌었다.

56) 『흥국사』에 실려 있는 「靈鷲山興國寺鳳凰大樓□□□□□□(□는 미상)(p.255)에는 ‘雍正七年己酉六月初九日 八道都總攝登階大禪師雲松子德機 謹識’로 되어 있다.

57) 양은용(1991), 앞의 글, p.200. 편대 이름과 계위가 1780년과 1803년, 1812년 기록이 있는데 1729년 기록과 다르다(양은용, 1991, p.200)

58) 「諸寺住持 兩宗擬數人薦望 報本曹 移文吏曹 磨勘差遣 三十朔而遞 如有所犯 兩宗報本曹 覈實治罪 犯奸者 并坐薦僧」(『經國大典』禮典 度僧 [諸寺住持·]). 『典錄通考』(1707)『大典通編』(1785)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다만 흥국사는 송광사의 말사(현재는 화엄사의 말사로 되어 있음)였으므로 말사의 주지도 이조가 임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법전에서는 이에 대해서 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말사의 주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전라좌수사에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었으므로 뇌헌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59) 권혁성(2012), p.380.

미하는가? 논자의 논리는, 사판승 뇌헌이 승군 지휘관을 겸하고 있어 수군과 똑같이 군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공적 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논자는 뇌헌이 상승이 아닌, 공적 세력과 연계된 승려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수군과 의승수군이라는 성격이 다른 신분을 혼용하여 무리하게 엮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겐로쿠 각서』에는 안용복이 “배 13척에 사람은 1척에 9인, 10인, 11인, 12-3인, 15인 정도씩 타고 다케시마까지 갔다고 하는데, 사람 수를 물으니 한 번에 답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일러 13척의 배는 개인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므로 두 사람이 선단 구성을 하는 한편, 한 척으로는 도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⁶⁰⁾ 하지만 이는 안용복이 당시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드러내고 세를 과시할 목적에서 그 숫자를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그의 배후세력과 연관시키려면 관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3척의 선박이 있었다면 이것이 그 배후에 두 사람이 있었음을 자동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3척이라는 많은 선박들이 울릉도로 떠났다면 해금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로 어로하러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IV. ‘의승수군’설과 ‘승장’설

1. 수군과 승군의 차이

논자들은 뇌헌이 의승수군이라는 논리를 펴되 사료의 출처와 진술의 신뢰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차 사료와 2차 문헌을 섞어서 논증하거나 현대의 홍보자료까지 가져와 논거로 이용했다. 뇌헌은 의승수군인가, 상승인가? 아니면 의승수군과 상승을 겸했는가? 의승수군과 수군은 같은 것인가? 의승수군, 승군, 승병, 승장, 수군, 비정규군, 정규군, 군인 등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60) 이상균·안동립(2019), pp.105-106.

논자들은 의승수군과 수군을 동일시한 경우가 많은데 우선 두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만기요람』⁶¹⁾에 따르면, 수군 제도는 고려 말기에 비로소 갖추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서 봉수군과 마찬가지로 ‘不在常徵’ 즉 정기적으로 징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군은 육군인 정병과 더불어 정규군이지만 정병에 비하면 그 숫자가 작았다. 주로 연해민으로 충원되었으나 산군의 사람도 충원되었고, 어염, 해산물 채취, 병선 수리, 조운, 축성 등에 동원되었다. 임진왜란 당시는 이순신이 3도 통제사로서 통제영을 설치하여 수군을 통제했다. 인조 연간 조정은 경기도·충청도·황해도 3도를 통제하는 통어영(統禦營)을 설치하여 통제하게 하는 한편, 평안도와 함경도는 감사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게 했다. 편제는 주진에는 수군절도사를, 거진에는 수군절제사·수군첨절제사를, 제진에는 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를 배속하도록 했다.⁶²⁾ 수군은 항상 원패(圓牌)를 착용하게 했는데, 한 면에는 어느 포구의 수군이라는 사실과 성명, 나이, 용모, 거주지를 적었다. 다른 면에는 ‘수군’이라는 두 글자를 전각했다.⁶³⁾

수군의 병선에 관한 규정은 일정하지 않지만, 『경국대전』은 전라도에 대맹선(大猛船) 22척을 두되 한 척마다 수군 80인을 두고, 중맹선(中猛船)은 43척을 두되 한 척마다 수군 60인, 소맹선(小猛船)은 33척을 두되 한 척마다 수군 30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속대전(續大典)』(1746)은 제도(諸道)에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탐선(探船), 거도선(艍舩船), 급수선(汲水船)을 둘 것을 규정했다. 또한 『속대전』은 전선과 병선에 대해 “전선과 병선은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 없다(위반한 사람은 군인을 함부로 놓아주어 100리 밖으로 나가 군역에서 빠지거나 소홀하게 했을 때의 형률에 따라 곤장 100대를 치고 충군한다)”⁶⁴⁾고 규정했다. 또한 “전선을 몰래 내보내 표류되어 잃어버리게 한 사람은 일률(一律)로 논죄한다”⁶⁵⁾고도 규정했다. 이런 규정으로 보건대 사형이라는 중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을 전라좌수사가 임의로 묵인해주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군선의 보유 현황은 『만기요람』에 따르면,⁶⁶⁾ 전라좌수영은 전선이 4척, 병선이 5척,

61) 『萬機要覽』軍政編 4 舟師 [總例]

62) 『經國大典』兵典 外官職 [總論職制]

63) “常佩圓牌 徑三寸 用周尺 一面書某浦水軍某年歲容貌居處 一面書年月日 兩面並篆烙水軍二字”(『經國大典』兵典 番次都目 [總論]; 『大典通編』兵典 番次都目 水軍; 『大典會通』兵典 番次都目 [水軍])

64) “毋得出送外洋[犯者 依縱放軍人出百里外空歇軍役律 杖一百充軍]”

65) “潛放戰船漂失者, 以一律論”(『大典通編』(1785). 『大典會通』(1865)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사후선(伺候船) 11척을 보유했다. 읍진인 순천에는 전선 1척, 방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다. 군관은 대변군관(待變軍官)을 비롯하여 선장(船將), 지구관(知穀官), 기패관(旗牌官) 등 여러 군관을 두되 계급에 따라 숫자를 규정했고 능로군(能櫓軍)⁶⁷⁾은 673명을 두었다.

논자들은 뇌헌을 의승수군으로 칭하는가 하면, 정규군 수군으로 보았다. 같은 논자가 의병으로서의 승군과 정규군으로서의 수군을 혼용하기도 했다. 뇌헌이 의승수군이었는데의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수군이었는데를 보면, 위에서 고찰한 ‘수군’ 규정에 비춰보거나, 의승수군에 비긴 선행연구에 비춰보더라도 정규군 수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뇌헌 등이 타고 간 선박이 군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등장했다.⁶⁸⁾ 이는 뇌헌이 수군임을 전제할 때 가능한 논리이다. 이상균과 안동립은 “1696년 도일의 출발지는 순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안용복 일행이 타고 갔던 배는 군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1696년의 도일은 조선의 조정에서 기획하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최영성, 2019; 이상균 안동립, 2019; 이태우, 2020)”⁶⁹⁾라고 했다. 또한 “한편 의승수군은 전라좌수영 소속 군인으로 뇌헌과 동행한 4명의 승려들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것은 전라좌수영의 승인 또는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이태우, 2020)”라고 했다. 선행연구를 답습하여 의승수군을 전라좌수영의 수군과 동일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뇌헌의 선박을 군선으로 본 것이다.

이상균과 안동립은 “1696년의 도일은 남구만과 같은 중앙 권력이 기획하고,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의 지원하에 경상좌수영과 전라좌수영이 연합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이상균 안동립, 2019). 특히, 뇌헌 등 5인의 승려들은 의승수군으로서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안용복과 뇌헌 일행이 도일시 타고 갔던 배는 일반 어선이라기보다는 사후선(伺候船)이나 누선(樓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⁷⁰⁾고 하며 자신들의 선행연구를 인용하고, 군선 가운데 사후선이나 누선일 것으로 특정했다. 이어 안용복 일행의 도일선은 노가 4개인 전라좌수영의 제1 사후

66) 『萬機要覽』 軍政編 4 舟師 [全羅左水營]

67) 안용복이 속했던 경상우수영은 능로군이 575명이었다(『萬機要覽』 軍政編 4 舟師 [慶尙左水營])

68) 이상균·안동립(2022), p.11.

69) 위의 글, p.11.

70) 위의 글, p.18.

선과 가장 가까운 규모일 것으로 보았다.⁷¹⁾ 사후선과 누선을 제시했다가 왜 사후선으로 특정했는지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안용복 일행의 도일선을 군선으로 규정한 것인데, 법전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군의 병선은 외양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더구나 순천에는 모두 2척의 사후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척이 이동되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뇌헌이 이를 울산으로 옮겨왔다면 그는 군율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배후세력을 운운하지만, 이는 뇌헌과 전라좌수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논리다. 만에 하나 전라좌수사가 뇌헌에게 군선의 외부 반출을 허용했다면 명분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조정과 별개로 성립할 수는 없다. 전라좌수영이 이 시기에 무슨 이유에서 군선을 외부로 나가게 했을 것이며, 그런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좌수사가 추진한 일이었다만 그 내용이 비변사 및 조정에서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는 뇌헌의 선박이 군선과 무관한 것임을 의미하며, 뇌헌이 처벌 받지 않은 이유도 간단하다. 수군 및 군선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2. ‘의승수군’ 설

논자들은 뇌헌이 의승수군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의승수군은 승군과 다른가? 사료에는 의승수군에 앞서 ‘승군’이라는 용어가 먼저 보였다. 조선 초기에 승군은 궁실의 토목과 수리 공사에 주로 동원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 병사를 물리치기 위해 의승·의승군·승병(僧兵)이 봉기하게 되었는데, 임란 이후 국가가 이들을 상설화하여 의승군으로 제도화했다. 임란 당시 의승군은 이순신의 해전에 투입되었는데 특히 거북선의 상당 부분이 의승수군(義僧水軍)에 의해 운행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⁷²⁾ 승군(의승군)이 제도화된 시기를 임란 후가 아니라 5위 체제가 5군영 체제로 개편된 인조 2년으로 보기도 한다.⁷³⁾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의승군과 전라좌수영 산하의 의승

71) 위의 글, p.22.

72) 양은용(1991), p.191.

73) 정조 연간에는 인조 2년 1624년으로 보았다(『정조실록』 1779년 8월 3일)

수군이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승군이 특정지역에서만 의승수군으로 불렸음을 의미한다. 5군영 체제가 수도와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 설치된 것이니만큼 두 산성의 승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전시가 아니었으므로 전라좌수영의 의승군은 그 지역 사찰의 축성이나 관련 임무에 동원되는 정도였다.

의승군이 전라좌수영과 연계성을 지니게 된 데는 임진왜란이라는 배경이 있다. 임란 당시 의승군은 이순신의 지휘를 받으며 산하의 영취산 흥국사에서 주둔했다. 의승군을 전라좌수영 본영에 주둔시키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전라좌수영 산하에 두어진 의승군을 특별히 ‘의승수군’으로 부르지만, 이는 1990년대에 붙여진 용어로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다. 1차 사료에는 ‘의승수군’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주로 ‘승군’으로 보이며 의승군(義僧軍)⁷⁴⁾으로 기술한 예도 드물다. 이렇듯 임란 당시는 승군으로 불리다가 의승군으로 불렸는데, 현대에 ‘의승수군’으로 특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승병이나 치영(緇營)으로도 불린 승군을 의승병, 의승군, 의승수군과 혼용할 수는 있지만, 수군과 혼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승수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학자는 양은용⁷⁵⁾이다. 1988년 흥국사 중수불사(重修佛事)를 하던 중 해체된 신당상량(神堂上梁)에서 몇 가지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양은용은 이들 문건에서 수백년 간에 걸친 의승수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 출간된 흥국사의 사지(寺誌) 『(호국의 성지) 興國寺』에는 제2장 제1절 「임진왜란과 흥국사의 역할」이라는 절에서 ‘의승수군(義僧水軍) 대장 자운(慈雲), 옥형(玉炯)’, ‘임란 후 의승수군의 활동’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의승수군’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최초의 기록인 듯하다. ⁷⁶⁾ 이 책은 흥국사 주지 진옥이 펴낸 것인데 각 장의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⁷⁷⁾

『(호국의 성지) 興國寺』는 승군과 의승병을 혼용했으나 호남의 의승병을 특별히 ‘의승수군’으로 칭한 듯하다. 의승수군은 임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을 도와 함께 싸우거나 군량 조달을 도왔고 전후에는 축성이나 복구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양은용은 흥국

74) 『비변사등록』 정조 8년 1월 12일;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월 11일. 같은 내용이다.

75) 양은용·김덕수 편, 『임진왜란과 불교 의승군』, 경서원, 1992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고 출전을 『全南文化財』 3으로 밝혔는데 연도는 1990년 12월로 되어 있다. 양은용 선생은 자신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2022년 9월 1일 전화자문)

76) 진옥(1989), p.72.

77) 양은용에 따르면, 의승수군 관련 미발표 원고를 흥국사에 전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요약하여 실은 듯하다는 것이다.

사의 의승수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언급했다.⁷⁸⁾ 그는 1929년에 이병오가 펴낸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는 흥국사에 대하여 “壬辰亂後 置僧兵三百以備防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선당수증상량기(禪堂修緝上梁記)』는 “義僧三百名”을 운운했고, 1890년 좌수영 절도사 이봉호가 지은 『흥국사 공북루 중수기(興國寺拱北樓重修記)』에도 “義僧之駐鎮也”를 언급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 문헌에 ‘의승’이나 ‘승병’은 보이지만 ‘의승수군’은 보이지 않는다. 양은용도 의승수군, 승병, 승군, 승군조직, 의승군, 수군을 혼용하되, 흥국사가 의승군의 주진사(駐鎮寺)⁷⁹⁾가 된 것은 임란을 전후해서이며, 흥국사의 중건은 전라좌수영과의 관련 아래 이루어져 중건 불사에 승군 300명 정수의 조직이 첨부되었다고 했다.⁸⁰⁾

승군을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전반 남한산성에서고, 그전에는 일시적으로 활용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충용청에 속한 승군은 주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배치되는데,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⁸¹⁾의 직책을 두고 그 아래에 도총섭과 총섭을 두었다. 도총섭과 달리 총섭은 원거승(原居僧)으로 차출하고, 중군승(中軍僧) 1인, 장교승(將校僧) 47인, 승군 372명을 두었으며 급료가 있다. 사찰에 따라 주지, 승통(僧統), 승장(僧將), 수승(首僧), 번승(番僧) 등을 두었다.⁸²⁾ 이태우는 흥국사 의승수군의 수장이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지닌다고 했지만,⁸³⁾ 팔도도총섭에 제수된 자는 휴정과 유정, 벽암, 처능 정도가 있고, 임란 후에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군대장을 도총섭에 임명하여 팔도도총섭을 겸하게 했다. 승대장으로도 불리는 도총섭은 불교계 자체에서 추대하거나 선출한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서 임명했다.⁸⁴⁾ 임란 후에도 도총섭은 관할지역의 사찰과

78) 양은용(1991), pp.184-185.

79) 『흥국사』(1989, p.76)에는 ‘진주사(鎭駐寺)’로 되어 있다. 양은용은 위의 글(1991)에서는 駐鎭寺로 표기했으나(p.185), 양은용·김덕수 편, 『임진왜란과 불교 의승군』(경서원, 1992, p.413)에서는 鎭駐寺로, 1992년 글(p.294)에서는 『興國寺拱北樓重修記』(1890)을 인용하여 駐鎭寺로 썼다.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駐鎭寺로 쓰고 있다. 그러나 양은용 본인이 언급했듯이 『興國寺拱北樓重修記』에는 ‘義僧之駐鎭也’로 되어 있다. 사료에 주진사나 진주사로 표기된 예가 없고, 이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80) 양은용(1991), p.187.

81) 양은용은 의승수군의 창설 시기를 1592년 9월경으로 보았다. 慈雲(三惠)이 임란에서의 전공으로 말미암아 의승수군을 재편할 때 ‘팔도도총섭’이라는 예조첩(禮曹帖)을 받았다. 창군 당시의 직함은 표호별도장(豹虎別都將)이고 임무는 순천수방(順天守防)이었고 주진(駐鎭)은 송광사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후 흥국사에서 의승수군을 상설조직으로 강화했다(양은용, 1991, p.194; p.197)

82) 주지가 승통을 겸한 경우가 있고, 수승은 예조로부터 첩문(帖文)을 받았다.

83) 이태우(2020), p.147.

84) 채상식(1998), p.99. 김용태는 도총섭 외에 중요한 공적 업무 주관자에게 부여하는 총섭은 예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용태, 2015, p.187)

승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⁸⁵⁾ 통상적으로는 사찰에 1인의 총섭을 두었고, 사고(四庫)가 있는 강화도에만 2인의 총섭을 두었다. 강화도 진해사(鎭海寺)의 경우 금위영 소속 승영의 주지를 총섭이라고 했다.⁸⁶⁾ 외방에 있는 사찰은 도총섭·주지·승통 등을 각 사찰에서 임명했다.⁸⁷⁾ 그렇다면 외방 사찰의 주지가 도총섭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⁸⁸⁾ 모든 사찰에 적용된 것은 아닌 듯하다. 총섭제에 관한 선행연구가 두 산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과 관련한 연구가 빈곤한 데 이는 도리어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이 팔도도총섭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흥국사의 주지가 도총섭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설령 흥국사 주지가 도총섭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뇌헌이 도총섭이었음을 저절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승군을 총섭제에 귀속시켜 군사체제에 편입시킨 것은 그 자체가 국가의 관리체계 안에 들어 있었음을 의미한다.⁸⁹⁾ 도총섭은 국가가 내린 최고의 승직인데 전라좌수영과 중앙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최영성은 주지인 뇌헌이 의승장을 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승수군의 주진사인 흥국사에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조선 말기까지 의승 300명 가량의 수군 조직이 있었으며,⁹⁰⁾ 의승수군은 수영 소속의 군인과 다름이 없었고 군율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았다.⁹¹⁾ 그러니 (뇌헌을 비롯한 승군) “5명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은 전라좌수사의 비밀히 가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⁹²⁾라고 했다. 이태우는 최영성의 논리를 답습했다.⁹³⁾ 이 역시 뇌헌이 흥국사 주지였고 승장이었음을 당연시하는 논리다.

논자들은 『완문 흥국사(完文興國寺)』의 규정을 들어 의승수군에게도 군율이 적용되

85) 양은용·김덕수(1992), p.92, pp.404-417 (출전은 吳恩暻,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대구사학』 제32집, 대구사학회, 1987)

86) 위의 글, p.413.

87) 「外方寺刹之守護關重處安邊釋王寺, 晉州玉泉寺, 寧邊酬忠寺, 密陽表忠寺, 海南表忠寺, 江陵月精寺, 報恩俗離寺, 大邱把溪寺. 置都摠攝·住持·僧統等任自本寺, 擇定可堪僧於各寺刹, 望報本曹劃出., 鑄給印信, 俾專守護, 歲一度改差, 成給帖文」(『六典條例』卷5 禮典 禮曹 [總例])

88) 정조대에 용주사를 창건하고 영정조대에 사액서원인 삼사(三祀)를 창설하여 산성 중심의 총섭제를 운영했는데 주지를 도총섭이라 칭하며 8도의 사찰 및 승군을 통솔하는 북한산성의 도총섭을 윤번으로 맡게 했다고 한다(채상식, 위의 글, p.100.)

89) 이종수(2015), p.224.

90) 최영성은 2019년의 글 112쪽의 각주 62에서 “양은용,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 『임진왜란과 불교의 수군』(양은용·김덕수 편, 경서원, 1992)”라고 출전을 제시했지만, 바른 제목은 『壬辰倭亂과 佛敎義僧軍』이다.

91) 최영성(2019), pp.112-114.

92) 위의 글, p.114.

93) 이태우(2020), p.148.

었을 것이나 전라좌수사의 묵인으로 도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완문 흥국사』(계사년 11월)는 『(호국의 성지) 興國寺』에 실려 있는데, 진옥은 작성 시기를 1653년 11월로 보았고, 완문을 “흥국사에 대한 담화문”⁹⁴⁾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담화문이라기보다는 흥국사가 지켜야 할 규율을 적은 문서에 가깝다. 그런데 완문이 하나의 책에서 두 군데 실려 있고 번역문은 각각 다르다. 『(호국의 성지) 興國寺』(p.78)에는 완문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본사 승도는 이미 성을 지키는 군졸인즉 임의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고 군사율(軍師律)에 의해서 처벌한다. 본사에서 삭발하고 다른 절로 이주하는 자는 대사(大師), 수좌(首座) 이외에는 소재지를 알릴 것이며 일일이 소환토록 경고한다.”

『(호국의 성지) 興國寺』 부록에도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는데(pp.233-235) 완문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本寺僧徒 既是守城之軍卒 則任意留去 亦師律 削髮本寺 而移住他刹者 大師首座外 隨其所告 一一刷還齊」

“본사 승려는 이미 성을 지키는 군졸인 즉 임의로 이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사율(軍師律)에 의해서 처벌한다. 본사에서 삭발하고 타찰로 이주하는 승려는 대사(大師)·수좌(首座) 이외에는 그의 소임지를 알려주면 일일이 소환하도록 해야 한다.”

최영성은 부록에 실린 번역문을 인용하고, 이 내용이 다른 사찰로의 이동을 금하며 신분은 전라좌수영 군졸과 같다는 점을 명기한 것으로 보았다.⁹⁵⁾ 그리하여 의승수군⁹⁶⁾은 수영 소속의 군인과 다름이 없었고 군율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태우도 이를 인용하되 『완문흥국사(完文興國寺)』(1653.11)⁹⁷⁾라고 하고 본문(p.78.)에 실린 내용을 인용했다.⁹⁸⁾ 진옥은 작성 시기를 1653년으로 추정했지만 최영성은 1893년⁹⁹⁾으로 보았다. 언제 작성된 것이든 이를 1696년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있지만, 완문대로라면,¹⁰⁰⁾ 흥국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승려는 군율에 따라 대사와 수좌를

94) 진옥(1989), p.76.

95) 최영성(2019), p.114. 각주 70. 완문을 1893년 전라좌수사 이봉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96) 『完文興國寺』 원문에는 僧徒로 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를 ‘의승수군’으로 바꾸었다(송은일, 2021, p.33)

97) 이는 『흥국사』(p.76)에서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이다.

98) 이태우(2020), p.148.

99) 최영성은 1893년으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흥국사』를 보면, 완문에 이어 바로 『興國寺拱北樓重修記』가 실려 있는데 ‘光緒十九年癸巳季秋節度使李鳳鎬識’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작성자를 이봉호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100) 필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제외하고 모두 그들이 간 곳으로 따라가 데려와야 한다. 따라서 뇌헌이 순천 흥국사 주지로서 순천을 떠나 울산으로 갔다면 울산까지 쫓아가서 그를 데려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 오자마자 쇠환되기도 전에 비변사로 압송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라좌수영 산하에서 승장이었다면 비변사에서 취조받을 때 이런 사실이 드러났어야 한다. 비변사도 그를 심문할 즈음 전라좌수영에 알려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뇌헌이 도일할 당시 전라좌수영 산하의 승군과 무관한 자였음을 방증한다.

이태우는 『호좌수영지』(1815, 1847)에 대한 신윤희¹⁰¹⁾의 해석을 인용하여 “전라좌수군 편성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좌수영지』에 기록된 의승군인데 좌라좌수군¹⁰²⁾으로서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⁰³⁾라고 했다. 그러나 『호좌수영지』에서 의승장(1)과 의승군(300)의 숫자를 명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라좌수군에 편제된 정규군임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의승군이 좌수영의 통솔 아래 있었다는 것과 수군이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¹⁰⁴⁾

논자는 전라좌수영의 편제와 좌수영 시설 안에 의승수군이 하나의 단위부대로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규군¹⁰⁵⁾이었음을 『호좌수영지』로 알 수 있다고 하지만,¹⁰⁶⁾ 의승군이 전라좌수영 산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군임을 의미하지 않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다른 한편, 의승수군이 좌수영의 산하에 있었다면 수군에게 적용하던 군율을 의승수군에게 준용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그러나 수군의 군율을 의승수군에게 준용했다는 사실과 의승수군이 수군과 동일하게 법적 지위를 지녔다는 것 역시 그 의미가 다르다.¹⁰⁷⁾

“본사의 승도는 이미 성을 지키는 군졸이니, 임의로 머물거나 떠나는 것도 사율(師律, 군율)을 따르라. 본사(本寺)에서 석발했는데 다른 절로 옮겨간 자는 대사(大師)와 수좌(首座) 외에는 그들이 알려준 곳으로 따라가 모두 쇠환하라.”

101) 신윤희(2016), p.82.

102) 좌라좌수군은 전라좌수군을 오기한 듯하다.

103) 이태우(2020), p.155.

104) 『단기요람』에는 전라좌수영에 속한 군사 편제에 의승장과 의승군이 없다. 『호좌수영지』(1815, 1847)에는 전라좌수영에 속한 군사 편제에 의승장(1)과 의승군(300)이 있다.

105) 의승군이 전라좌수군으로서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신윤희의 글 p.82에 보인다. 신윤희는 임란 당시의 의승군의 조직력과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호좌수영지』에 기록된 의승군을 정규군·상비군으로 연결지었는데, 시기적으로 다른 의승군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6) 이태우(2020), p.153, p.155.

107) 양은용에 따르면, 의승군을 수군과 같은 군율로 다스리는 경우는 차출과 관련했을 때뿐으로 전시에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전쟁 후 안정된 시기의 의승군은 전라좌수영 소속이지만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뇌헌이 1703년 홍국사 사적비에 뇌헌(雷軒)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데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뇌헌의 도일이 조정의 내락을 얻었다는 사실과 연계지은 경우가 있다.¹⁰⁸⁾ 하지만, 죄를 지은 자라면 애초에 사적비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적비에 기록된 뇌헌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인물로 본다면, 그가 기록된 이유는 상승으로서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군에게는 물자를 후히 보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부분의 지방 사찰은 승군과 그에 필요한 문자를 직접 조달해야 했다. 승군이 하는 일은 평상시에는 제지(製紙), 군량과 군기물 창고 수직, 축성 및 개축, 설제(設祭), 수조 훈련 등이다. 그러므로 뇌헌이 상승이었다면 사찰과 승군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그가 울릉도로 가서 전복 채취에 참여하려 한 사실은 자연스레 설명된다. 그가 일본에까지 갔다 왔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쉬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용복의 도일에 동행한 단순 가담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뇌헌은 의승수군의 우두머리로서 일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안용복의 도일 계획에 처음부터 함께한 자가 아니었다.

V. 결 론

뇌헌에 관한 연구는 논자에 따라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논자가 하나의 주장을 제기하면 다른 논자가 이 주장에 새로운 주장을 더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논란거리가 심화되었다. 논자들은 뇌헌이 ‘홍국사 주지’라고 진술한 일본 측 기록, 사건 발생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기에 ‘금오승장’이라고 기록한 일본 측 문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런데 사료를 분석할 때는 1차 사료인가 가공된 문헌인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어디에서 조사받았는가도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한다. 안용복과 그 일행이 자국에서는 신

비교적 자유롭게 승려 생활을 했을 것이며, 홍국사 소유의 선박이 있었다면 상선일 것으로 보았다(2022년 9월 1일과 19일 통화)

108) 최영성(2019), p.115; 이상균·안동립(2022), p.11.

분이나 도일 경로와 같이 명백한 사실은 속이기가 어려웠겠지만, 해금정책을 어긴 데 따르는 벌을 피하기 위해 표류를 가장하거나 일본에서의 공적을 과장하는 일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국정을 총괄하는 비변사에서 안용복과 뇌헌 등이 조사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일차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논자들의 대부분은 심문 내용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를 보지 않은 채 일본 측 기록에만 의거하여 논지를 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선 측 기록과 일본 측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지도 않았다. 논자들은 ‘흥국사 주지’라는 일본 기록에 의거하여 의승수군임을 단정하고, ‘금오승장’이라는 일본 기록에 의거하여 승군의 지휘관으로 단정한 뒤에 이를 전라좌수사와 연결지었다. 이어 승장 뇌헌이 군율을 어겨가며 군선을 이끌고 일본까지 갔다왔음에도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도출했다. 논자에 따라서는 뇌헌을 안용복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1696년 안용복과 그 일행의 행적은 당시로서는 매우 중대한 외교문제였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임금이 대신들과 며칠을 두고 머리를 맞대며 의논했고, 원로대신에게까지 자문을 구해야 했다. 그 과정이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뇌헌은 안용복의 유인에 넘어간 동행자로서 인식되었을 뿐이므로 사료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뇌헌이 의승군의 수장이라는 논리가 도출될 여지는 전혀 없다. 논리적 귀결이 이러한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일러 ‘해석학적 연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공소한 주장이다.

조선시대 사찰의 주지 임명에는 예조와 이조가 관계되어 있었다. 흥국사 주지도 이조에서 택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뇌헌이 전라좌수영과 관계되어 있었다면 비변사로 압송되었을 때 전라좌수영에 조회했을 것이고, 조정에서는 이를 언급했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 사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같이 국가의 밀명을 받고 도일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열띠게 논의하고 다른 한 명을 논외로 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논자들은 뇌헌이 승군의 통솔자였고 전라좌수영과 관련 있다고 하지만, 조선의 보고체계를 본다면 전라좌수영과 중앙정부를 분리해서 논하기는 어렵다. 논자들은 전라좌수영과의 연계는 당연히 상정하면서 보고체계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논자들은 뇌헌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공적 임무의 수행 혹은 고위직 관리와 연관짓고 있다. 흥국사의 승군이 전라좌수

영 산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뇌헌의 행적을 공적 임무와 연계짓는 것도 문제지만, 3정승과 6대신을 배제한 채 고위직 관리를 논하는 것도 문제이다. 승군 조직은 관군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논리를 편 논자가 있는데, 그랬다면 전라좌수영과 연계지은 자신의 논지와도 상충한다. 논자들은 뇌헌이 처벌받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전라좌수사의 목인을 운운하지만, 전라좌수사가 개재되어 있었는데 조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뇌헌은 단순한 상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696년의 일본 문헌에는 그가 주지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의 문헌에는 ‘승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안용복의 신분이 1696년 일본에서 승격된 상태로 기록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1693년 당시 안용복이 지냈던 호패를 따라 ‘사노(私奴) 용복(用卜)’으로 기록했으나 1696년 기록에서는 ‘통정대부’로 적혀 있고 18세기 말엽에는 ‘3품당상 안 동지(安同知)¹⁰⁹⁾’로 바뀌어 있다. 안용복이 1696년에는 통정대부로 되어 있다가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3품당상 안 동지’로 바뀐 것이다. 뇌헌이 ‘홍국사 주지’로 칭한 것도 안용복의 신분에 걸맞게 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행한 승려들이 뇌헌과 나이 차가 나므로 제자라고 하고 자신이 주지라고 해도 의심받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른 뒤 문헌에 ‘주지’에서 ‘금오승장’으로 바뀐 것은 그가 금오산 관련 문서¹¹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금오암의 승려로 본 데 기인한다. 즉 당시에는 금오암이 홍국사의 말사였으므로 뇌헌이 ‘홍국사 주지’를 사칭했던 것인데, 후대에 이를 기록하는 자가 금오(암)를 언급하면서 ‘승장’으로 승격하여 전한 것이다.

1696년에 55세였던 뇌헌은 전라좌수영을 운운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전라좌수영의 승군이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를 전라좌수영의 승군 혹은 승장과 연결짓는 이유는 ‘금오승장’이라고 적은 일본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홍국사가 전라좌수영 승군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한국 연구자들이 ‘승장’이라는 일본 기록에 쫓겨 맞춰 도출한 논리에 불과하다. 1696년의 직함이 18세기 말에 와전된 원인은 앞으로 논구할 과제지만, 같은 문헌에서 이 비장과 김 비장 등 무관

109)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의 품계이므로 이를 알고 후대에 이렇게 전해진 듯하다. 안용복이 정3품 당상을 칭한 사실은 없다.

110) 금오산 관련 문서는 『겐로쿠 각서』에 “金烏山之朱印狀”과 “金烏山朱印ノ書付”라고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붉은 인주로 날인한 문서를 의미하지 일본에서 발행되는 성격의 주인공이 아니다.

직함이 함께 보인 것은 ‘승장’ 직함의 출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뇌헌의 신분에 대해 양국의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뇌헌도 안용복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격상시켜 주지를 사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승장’은 뇌헌이 직접 칭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와전된 것이다. 뇌헌이 전라좌수영의 승장과 무관하다면, 실록의 기술대로 경제적인 이익에 유인되어 안용복의 울릉도행에 동참한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그가 조정에서의 논의에 끼이지 않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점도 설명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뇌헌의 선박을 군선과 연계시켜 선박의 복원을 운운하는 일각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한 인물의 행적을 새로이 평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된 사료와 새로운 논리는 서로 부합해야 한다. 사료는 1차 사료인가 2차 문헌인가를 따지되 1차 사료라 하더라도 기록된 당사자의 상황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2차 문헌은 1차 사료와 달리 후대에 가공된 것이므로 점점 극적으로 그려지거나 윤색이 더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문헌학적 연구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자구 해석에 매달리거나 기술연대가 다른 사료를 섞어 해석한다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뇌헌 연구에서 요구되는 것은 안용복 연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성이지 소설적 상상력이 아니다.

투고일	2022. 10. 04
1차 심사일	2022. 11. 24
게재확정일	2022. 12. 05

■ ■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속대전(續大典)』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춘관지(春官志)』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

『겐로쿠 9 병자년 조선 배가 해안에 도착한 한 권의 각서(元祿九年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1696)

『다케시마고(竹島考)』(1828)

『이나바지(因幡志)』(1795)

『인푸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작자·연대 미상)

1. 양은용·김덕수 편. 1992.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울릉도 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 울산광역시.
3. 진옥 편. 1989. 『호국의 성지 홍국사』. 홍국사.
4. 권오엽. 2015.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일본어문학』, 65, 한국일본어문학회.
5. 권정. 2011.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일본어문학』, 55, 한국 일본어문학회.
6. 권혁성. 2012. 「순천승 雷憲의 일본도해 : 호국승으로서의 뇌현」. 『일어일문학』, 제55집, 대한 일어일문학회.
7. 김용태. 2015.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한국 사상문화학회.
8. 송은일. 2021.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승군 및 의승수군과 주둔지 홍국사 고찰」. 『세계 역사

와 문화연구』, 59집, 한국세계문화사학회.

9. 신윤희. 2016.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창.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0. 양은용. 1991.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에 관한 연구」. 『전남문화재』, 3, 전라남도.
11. 吳恩暻. 1987.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대구사학』, 제32집, 대구사학회. (양은용·김덕수 편. 1992.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pp. 404-417에 재수록)
12. 유미림. 2019.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도연구』, 제2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3. 이상균·안동립. 2019.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영토교육용 학습자료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4. 이상균·안동립. 2022. 「안용복의 도일선박 복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도연구』, 제32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5. 이종수. 2015.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 『한국불교사연구』, 제8호, 한국불교사연구소.
16. 이태우. 2010. 「1696년 안용복·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독도연구』, 제2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7. 정정주. 1993. 「전라좌수영의 역사」. 『전라좌수영 역사와 문화』. 순천대 박물관 여수시.
18. 정태상. 2020. 「안용복 2차 도일 당시 순천승 뇌헌의 역할」.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4집. 한국세계문화사학회,
19. 채상식. 1998. 「고려 조선시기 불교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28, 국사편찬위원회.
20. 최영성. 2019.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조선의 密使’ 안용복-」. 『독도연구』, 제2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